

르네상스 예술이 현실의 재현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그 한계는 무엇인가.

나는 이 세계가 '기존질서의 해체와 재정의'의 반복(연속)으로 흘러간다고 믿는다. 서양을 기준으로, 인간은 인류의 족적을 크게 '고대, 중세, 근대'로 분류했다. 그리스로마 중심의 고대, 기독교적 신 중심의 중세, 그리고 고대 그리스로마의 부활 및 인간중심의 근대. 하지만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시기들이, 다음 시대로 변화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루아침에 중세적 특징을 가졌던 사회가 갑자기 르네상스적 특징을 가지는 사회로 변모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즉, 중세 안에서도 이전 세대로부터 이어져오는 특징들과, 다음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다.

같은 르네상스 시기 안에서, '구조, 비례, 조화' 및 '이상적 질서'를 추구하는 정통 르네상스적인 특징을 추구한 '라파엘로'와, 전통적인 르네상스적 특징과 관념을 해체하고 바로크 시대를 여는 예술적 특징을 보여주는 '미켈란젤로'가 있다는 것이 그 좋은 예일 것이다. 더불어 여전히 르네상스 시대에도, 인문중심을 표방한 '고대 그리스로마 신화'와 함께 중세 '신' 중심의 기독교적 회화가 함께 공존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르네상스 예술과 그 정신'은 그 당대의 현실 속 세상에서 '기존 중심질서의 해체와 재정의'라는 운동을 보여주고 있다. 중세의 신 중심의 질서를 해체하며 태동, 르네상스라는 근대질서의 재구성, 그리고 르네상스의 한계를 느끼며 촉발되는 해체적 움직임이라는 운동 말이다. 나는 이러한 점이 르네상스적 예술이 현실의 재현에 기여한 첫 번째 의의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이성과 관찰을 활용한 현실세계의 구현이다. 라파엘로는 '원근법'을 통해 회화 속에 눈으로 보이는 현실 속의 공간감을 살려냈다. 또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새의 날개를 깊이 관찰하며 비행에 필요한 나선형 프로펠러에 대한 생각을 해냈고, 자연의 관찰로 기중기의 원리를 발명했으며, 신체를 직접 해부해봄으로써 인간 해부도를 자세히 구현해냄으로써, 현실 속의 질서와 운동을 관찰하고 창조물로 표현해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의 감정과 이야기의 구현이다. 보티첼리는 자기만의 시각을 반영하여 사물을 바라보고 신화를 해석했다. 보티첼리의 다양하고 조화로운 색감은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게 만든다. 더불어 작품 속에 이야기(narrative)를 구현해냄으로써, 보티첼리만의 시선과, 현실 속 인간의 이야기를 예술 속에 담아냈다. 중세 때라면 결코 상상도 할 수 없을 그림과 표현들이었다. 인간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야기'를 회화에도 접목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르네상스 예술이 가지는 한계도 있다. 여전히 그리스로마 신화에 갇혀있으며, 지나친 이상추구에 치우쳐 있고, 현실구현에도 한계가 있었다. '구조와 비례'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때론 작품의 주제보다도, 구도나 건물이 더 돋보이는 경우가 많다. 인간의 이성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이상을 표현하려고 노력한 것은 좋으나, 여전히 현실이라는 '기의'를 구도, 원근법 등과 같은 '기표'로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르네상스 이후 바로크시대의 카르바지오의 작품을 보면, 르네상스 예술의 한계가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카르바지오는 정물화와 일상 속의 사람 풍경을 통해, 그리고 순간순간의 현실 속 모습을 회화로 구현함으로써, 있는 그대로 현실들 더욱 잘 드러나게 재현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이 르네상스 예술의 현실 재현적 측면에서 가지는 한계가 아닌가 한다.